

# ‘스타트업’ 김선호 “어릴 때 강도 트라우마... 연기하면서 극복”

‘스타트업’에서 ‘한지평’ 역... ‘역대급 서브 남주’ 호평

“수지, 연기 훌륭한 여배우... 집중력 뛰어나고 차분”

“남주혁, 연기할 때 통통 튀는 아이디어·센스 빛 발해”

“배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분들 덕분에 배우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또 행복하게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다.”

지난 6일 종영한 tvN 주말극 ‘스타트업’에 출연한 배우 김선호는 최근 뉴스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덕분에 행복하고 과분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행복한 마음을 전했다.

김선호는 ‘스타트업’에서 독실을 겸비한 투자자 ‘한지평’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그는 디테일한 연기로 카리스마, 안쓰러움, 설렘을 오가며 ‘역대급 서브 남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역대급 서브 남주? 과분한 평... 수지·남주혁 덕”

그는 “과분한 평이다. 주인공인 달미와 도산이, 수지와 남주혁이 극을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저 또한 좋게 봐주신 것 같다”며 “주연 배우들이 워낙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라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다”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스타트업”이라는 작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제작진, 배우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 조금의 무리도 없이 행복하게 작품을 끝낼 수 있었다.”

종영에 대한 진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끌어라니 참 아쉽다”며 “저한테는 굉장하 아 쉽게 느껴지고, 지평이를 못 만나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 ‘한지평’이라는 인물로 살아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한지평’과의 싱크로율은 ‘50%’라는 자평이다. “지평이처럼 남들한테 차가운 말도 잘 못하고 실제 좋은 집과 차도 없지만 저라는 사람이 연기했으니 절반 정도는 저의 모습이 묻어나지 않았을까 싶다.”

박해련 작가의 오랜 팬이어서 이번 출연이 더 뜻깊었다. 그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너무 재밌게 봤었고 ‘피노키오’도 재밌게 봤다”며 “대본을 보니 글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다. 책이 너무 재밌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오충환 감독에 대해서도 “닥터스랑 ‘호텔 델루나’까지 너무 재밌게 봐서 함께 작업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1회에서 ‘원탁’(김해숙 분)이 어린 ‘지평’에게 신발끈을 묶어주고 나서 “성공하면 연락하지마. 부자되고 결혼해도 연락하지마. 잘 먹고 잘 살면 연락하지마. 대신 힘들면 연락해. 저번처럼 비오는데 갈 데 하나 없으면 와. 미련골뱅이처럼 맞지 말고 그냥 와”라고 이야기해주는 장면을 꼽았다.

그는 “지평이로서도, 시청자로서도 가슴이



참 아깝면서도 좋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연애, 친구처럼 즐겁게 대화하고 편한 사이 선호”

‘한지평’은 투덜거리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건 다 해주는 전형적 ‘촌대’였다. 실제 김선호는 어떨까.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편하고 안정감이 들어가 된다고 생각한다. 매번 설레고 떨리는 것도 좋지만 각자의 삶도 열심히 살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즐겁게 잘 지내는 사이면 좋을 것 같다.”

배수지, 남주혁과의 합은 어땠을까. 그는 “수지는 집중력이 뛰어나고 연기를 훌륭하게 하

는 여배우”라며 “연기할 때 매 순간 집중력이 뛰어나고 차분했던 것 같다. 현장 분위기도 유쾌하게 이끌어 주는 좋은 배우라 저도 유쾌하게 촬영했다”고 밝혔다.

남주혁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배우고 동생이다. 함께 하는 내내 많이 배웠고 매 순간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날만큼 즐거웠다”며 “연기할 때 늘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센스들이 빛을 발하고 덕분에 저도 함께 연기하는 순간을 즐길 수 있었다”고 평했다.

방송 전 KBS 2TV 예능물 ‘1박2일’ 속 김선호와 드라마 ‘한지평’ 사이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훌륭히 극복했다.

그는 “‘1박2일’ 속 저는 여전히 많은 것에 서툴고 부족하고 어설플 김선호가 혼자 즐기고

있다”며 “배우로서 김선호는 연기를 알고 행하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도 본 트라우마로 누군가 시선 받는 것 두려움... 연기로 점차 나아져”

2009년 연극 ‘뉴 보잉보잉’으로 데뷔한 김선호는 ‘연극계의 아이돌’로 불리며 이미 무대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선호가 짝는 방송 연기와 연극 연기의 차이점은 뭘까.

“테크닉적으로 명확하게 다르다. 매체 연기는 바스트, 타이트, 풀샷 등 다양한 구도와 각도가 있어서 각 구도에 따라 연기를 해야 하는 초점이 다르다. 하지만 연극은 공연되는 시간 동안 풀샷으로 진행된다. 표정도 중요하지만 몸의 움직임이나 제스처, 동선 등 매체 연기와는 또 다르게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어릴 적 강도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연기 활동을 통해 극복했다고 고백했다.

“어릴 때 집에 강도가 든 걸 직접 봐서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다 연기를 하면서 시선이 따듯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면서 점차 나아졌다.”

그는 “다음에도 같이 하고 싶은 배우가 되는 것이 목표”다.

“1박2일을 통해 계속 인사드리면서 내년 1월 개막되는 연극 ‘얼음’을 통해 관객 여러분께 인사드릴 것 같다. 내년에는 조금 더 편안한 배우로 여러분께 다가가고 싶다. 무엇보다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

## 블랙핑크, ‘걸그룹 최초’ 가온차트 밀리언 달성

정규 1집 ‘디 앨범’, 누적판매량 125만장 돌파

그룹 ‘블랙핑크’가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 누적 판매량 약 125만 장을 돌파로, 걸그룹 최초로 가온차트 밀리언을 달성했다.

10일 발표된 가온 인증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발매한 블랙핑크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디 앨범’(THE ALBUM)은 앨범 부문 밀리언(MILLION) 인증 리스트에 올랐다.

블랙핑크가 데뷔 4년 만에 선보인 정규 앨범인 ‘디 앨범’은 선주문량 100만 장을 넘어서며 컴백 전부터 많은 기대와 글로벌 파급력을 증명했다.

특히 발매 20일 만에 판매량 120장을 기록하며 K팝 걸그룹 새 역사를 썼다. 블랙핑크는 ‘디 앨범’ 밀리언 인증에 앞

서 지난 9월 스페셜 에디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으로 플래티넘을 달성했다.

이밖에도 블랙핑크는 가온차트 앨범 부문에서 ‘스퀘어 업(SQUARE UP)’과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다운로드 부문에서 ‘포에버 영(Forever Young)’, ‘뚜두뚜두(DDU-DU DDU-DU)’, 스트리밍 부문에서 ‘포에버 영’, ‘솔로’, ‘뚜두뚜두’까지 플래티넘 배치한 총 8개를 보유하고 있다.

블랙핑크는 올해 왕성한 활동을 통해 세계적 걸그룹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디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픈업 앨범 차트에서 발매 첫 주 모두 2위에 오른 뒤 각각 9주, 7주 연속 랭크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2020 베스트 앨범 50’에 이 앨범을 꼽으며 “블랙핑크는 혁명”이라고 극찬을 쏟아냈다.

K팝 가수 최고 순위다. 롤링스톤도 ‘2020 베스트 송’에서 “블랙핑크가 미국 음악시장에서 열풍을 일으켰다”고 주목했다.

이외에도 최근 진행된 미국 ‘버라이어티 히트메이커스(Variety Hitmakers)’ 시상식에서 ‘올해의 그룹상’을 K팝 걸그룹 최초로 수상했으며, 중국 QQ뮤직 ‘봄봄 어워즈’에서 ‘글로벌 인기 그룹상’도 차지했다.

또 ‘2020 멜론뮤직어워즈(MMA)’ 2관왕(여자 베스트 댄스상·톱10), ‘2020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3관왕(여자 그룹상·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여자그룹상·월드와이드팬츠오이스), CJ ENM ‘2020 비저너리(Visionary)’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슈퍼주니어, ‘정규 10집’ 내년 1월로 연기

한류그룹 ‘슈퍼주니어’가 이달 예정이던 정규 10집 ‘르네상스’ 발매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슈퍼주니어 전담 레이블S는 9일 공식 SNS에 “12월 발매 예정이었던 슈퍼주니어의 정규 10집이 2021년 1월 발매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슈퍼주니어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앨범인 만큼, 더욱 완성도 있는 앨범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면서 “앨범 발매까지 지난 2일 공개된 ‘사랑이 맞지 않게’ 라이브 클립과 같이 매우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5년 데뷔한 슈퍼주니어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 등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로모델은 일본 그룹 ‘스마프(SMAP)’였다. 스마프 멤버들은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 예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멀티태너였다.

슈퍼주니어 멤버들 역시 가수 외 예능, 연기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 원진아·로운·이현욱·이주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내년 1월 첫방

JTBC 새 월화드라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가 내년 1월 18일 첫 방송된다.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측은 10일 첫 방송 일정과 함께 원진아, 로운, 이현욱, 이주빈의 4인 4색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는 나도 모르게 시작된 하나의 로맨스를 그리는 드라마다.

원진아가 맡은 ‘윤송아’ 역은 강단 있는 성격이 엿보이는 단단한 눈빛과 함께 보일 듯 말 듯 어렴풋한 미소를 숨긴 듯한 모습이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머리카락이 마치 ‘선배’라는 말을 듣고 돌아보는 것 같은 묘한 설렘을 더한다.

그런 그녀를 ‘선배’라고 부를 다정한 목소리

의 주인공 ‘채현승’(로운)은 파스함이 묻어난다. 오직 한 곳을 향하는 달달한 눈빛을 선보인다.

‘이재신’(이현욱)에게는 어른 남자의 여유로움이 넘친다.

윤송아와 채현승이 있는 ‘끌라르’ 마케팅팀의 팀장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온 그가 내면에 또 어떤 야망을 품고 있을지 궁금증을 불러온다.

‘이효주’(이주빈)는 ‘끌라르’ 창업주의 손녀이자 촉망받는 포토그래퍼답게 화려한 패션으로 시선을 끈다.

차갑고 시크한 표정 속에 외로움을 감춘 그녀가 윤송아, 채현승, 이재신과 어떻게 얽히고설키며 예측 불가 상황을 만들어낼지 긴장감을 더한다.



## 송강호, 씨브라임아티스트컴퍼니와 계약...비와 한솔밥

씨브라임아티스트에이전시는 배우 송강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씨브라임아티스트컴퍼니에는 가수 비(정지훈)를 비롯해 배우 윤정희, 티아라 출신 효민,

EXID 출신 하니, IOI 출신 임나영 등이 소속돼 있다.

송강호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 호두엔유 엔터테인먼트를 나와 1년간 홀로 활동해왔

다.

지난 10월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 촬영을 마치고 신연식 감독의 ‘1승’,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 배성우 “음주운전, 잘못 통감...깊이 반성 지속하겠다”

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배성우는 10일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정중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아울러 함께 일하는 많은 분들께도 사과드리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지속하도록 하겠다”며 “저를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도 공식입장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소식을 전해가게 돼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배성우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배성우씨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향후



정해진 일정에 대해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배성우는 지인인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